

시장의. 발견. 선남선녀.

스타모잠. 책.

남영숙

장면 #1

“목욕하면서 책 읽으세요”일본서 물에 젖지 않는 문고판 시판

일본에서 목욕중에도 읽을 수 있는 물에 젖지 않는 책이 등장했다. 도쿄에 본사를 둔 ‘프론티어 닷센’은 최근 급증하는 반신욕 애호가를 겨냥, 비닐 소재로 만든 ‘목욕탕 문고판’을 만들어 인터넷을 통해 판매를 시작했다. 이 책은 물에 젖어도 찢기지 않고, 책장이 들러 붙지 않는게 특징이다.

이 회사는 현재까지 나쓰메 소세키, 다자이 오사무 등 일본 유명 작가의 소설과 루이스 캐롤의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등 국내외 작품 20권을 펴냈다. 시판가는 한 권에 735엔으로 일반 문고판보다 100엔 가량 비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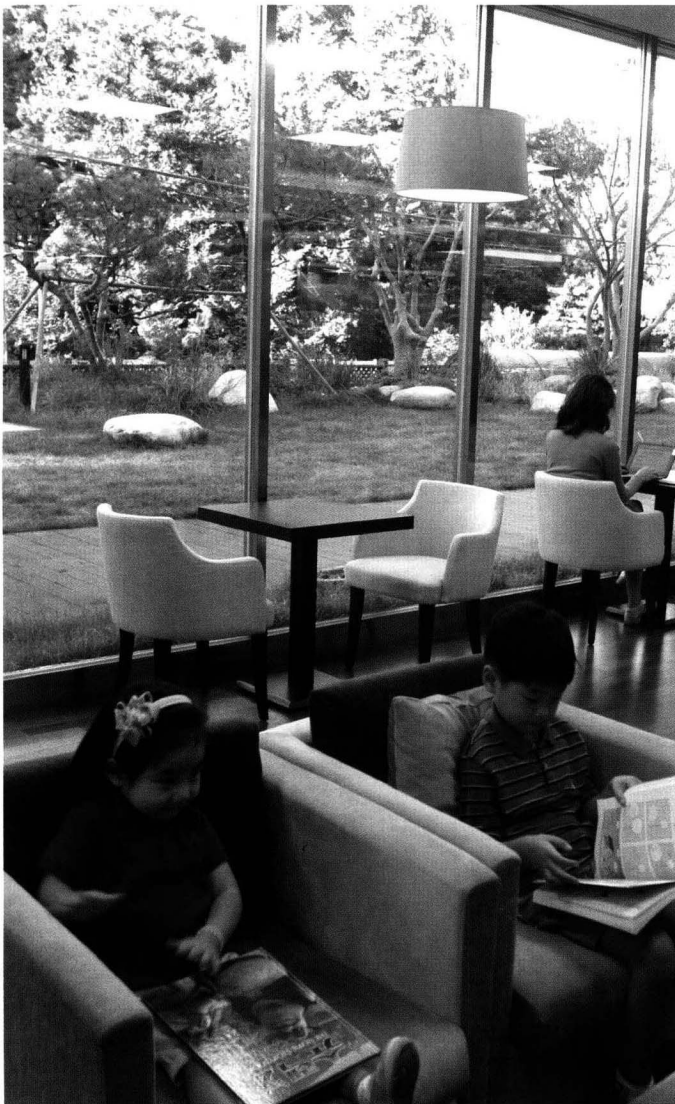
회사측은 역사소설 만화책 등으로 범위를 넓혀 연말까지 1백여 종을 발간할 계획이다. 또 소비자들이 보고 난 책은 회수해 다이옥신이 발생하지 않는 고온 소각로에서 처리, 환경문제도 해결하고 있다.(하략) 최인한(한국경제 2004.10.17)

드디어 나왔다. 목욕탕에서 읽는 책! 언젠가 누군가 만들거야 라고 꿈꾸었던 책이 가까운 일본에서도 현실화되었다. 여기에서 일본에서 ‘도’의 의미는 이렇다. 얼마 전 출판아카데미 편집자입문 강의를 통해 유럽에도 같은 성격의 ‘베스 북 Bath Book’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이다. 다만 기억을 돌이켜 보건대, 아이들을 목욕으로 유혹할 만한 장난감 성격의 책이었던 것 같다.

이무튼 일본의 목욕탕 문고는 우리 출판계로서도 새로운 가능성이 있다. ‘반신욕을 즐기는’ 비슷한 독자층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의 반신욕 방식과 목욕탕이라는 시공간, 그들이 좋아하는 이야기 내용 및 그에 따른 편집방식 등이 새롭게 발굴, 정의될 것이다.

비닐책으로 말머리를 연 김에 오늘은 물리적인 책의 형식, 형태에 대해 제안해 볼까 한다. 우리 책은 신국판 같은 몇 가지 크기와 형식에 갇혀 있다. 옷 한 벌, 음식 한 그릇도 어떻게 연출할지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스타일리스트가 있는 세상에 책의 스타일에 대해서는 관심이 적은 것 같다(잠시 삼천포: 책 디스플레이 전문가나 연예인 구미뚝 책 코디네이터가 있다면 기성품 책이라도 시시 때때로 예뻐지는 것은 물론이요 잘 팔리지 않을까?).

흔히 ‘원소스 멀티유즈 One Source Multi Use’라 하여 종이책을 영화나 뮤지컬·전자책·애니메이션으로 바꾸는 정도를 생각하지만, 대상독자나 독서의 맥락만 달라져도 그 책은 거의 새로 태어나 다시피 변신해야 한다. 같은 종이책 안에서도 원소스 멀티유즈는 가능하다. 아니 비용 대비 효과면에서 가장 가격경쟁력이 높지 않을까 생각한다.



유럽에는 아이들 키보다 큰 친구랑 같이 보는 책이 있다. 친구와 더불어 울고 웃으면서 아이들의 독서체험은 혼자 읽을 때보다 풍부해진다.

장면 #2

TV에서 본 얘기다. 상당한 시간이 흘러 가물거리는 기억력으로 출처는 잊었지만, 유럽의 유치원엔 아이들 키보다 큰 그림책이 있다. 이름하여 '친구랑 같이 보는 책'이다. 책을 열면 가로 방향으로 아이들 셋쯤은 너끈히 얼굴을 괴고 엮드려 읽을 만한 공간이 펼쳐지는 대형책이다.

혼자가 아닌 친구들과 어울려 읽는 책에서는 단순히 읽는 재미뿐만 아니라 '어우러진 삶'에 대한 교육효과도 쉽게 기대할 수 있다. 기껏해야 대여섯 살 철없는 어린 아이지만 여럿이 함께할 수 있도록 책을 독차지하지 않고, 친구가 다 읽을 때까지 페이지를 넘기지 않으며 참고 기다려야 하는 데서 이해와 양보를 배울 것이다. 친구와 더불어 울고 웃으면서 아이의 독서체험은 혼자 읽을 때보다 풍부해진다.



불황이고 읽을 책이 없다고 하지만 책의 물리적 특성을 차별화함으로써 새로운 틈새가 열리지 않을까.

장면 #3

이번엔 콩나물 시루 같은 만원 지하철 안이다. 언제 도착하나. 목적지까지 길고 긴 여정은 지루하기만 한데, 얼핏 주위를 둘러보니 남녀노소 불문 죄다 조그만 핸드폰 액정화면만 쳐다보고 있다. 젊은 남자들은 테트리스·맞고 등 휴대폰 게임에, 여자들은 예외없이 문자삼매경에 빠져 있다. 무념무상 휴대폰의 슬라이딩 도어를 출입문에 밀었다 뺐다 하는 경우도 있다. 그냥 휴대폰 자체로 노는 것이다. 이른바 출판밥을 갈망하는 열혈 편집자 지망생인 나. 휴대폰이 대세인 전철 안에서 저 휴대폰들이 모두 책이라면 하고, 바로 상상 모드에 들어간다.

책들이 저 휴대폰만큼 작고 가벼워진다면 어떨까(전자책은 여기서 논의다. 순수하게 고전적인 종이로 상상해 보자)? 작고 가느다란 실루엣의 패션이 유행하는 요즘, 여자들의 핸드백만 놓고 봐도 지갑, 거울 등 필수품만 넣어도 책이 들어갈 자리를 만들기란 쉽지 않다. 그래서 애긴데 '획기적으로' 작아서 주머니에 쏙 들어가고 출퇴근길에 가볍게 읽을 책이 있다면 멋지지 않을까? 더군다나 너무 짝해서 단순히 소유욕만 자극할 수 있어도 재밌지 않을까 한다. 사서 읽을 책, 그냥 빌릴 책과는 또 다른 의미의 패션 아이콘으로서 '갖고 싶은 책'이다.

출판계는 불황이라고 아우성이다. 독자들은 읽을거리가 없다고 한다. 뽀뽀해봐도 책이란 모름지기 내용이 기본이 돼야 하겠지만, 책의 물리적 특성을 차별화함으로써 새로운 틈새가 열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이것저것 보고 들은 것을 제안해 보았다.

예쁜 책, 귀여운 책, 멋진 책, 카리스마가 있는 책 등 출판 분야에도 선남선녀 스타 몸짱을 상상한다. **▶▶▶**

이 글을 쓴 남영숙은 출판편집자 지망생으로 현재 출판사 입사 시월에 합격, 출판계 데뷔를 앞두고 있다.